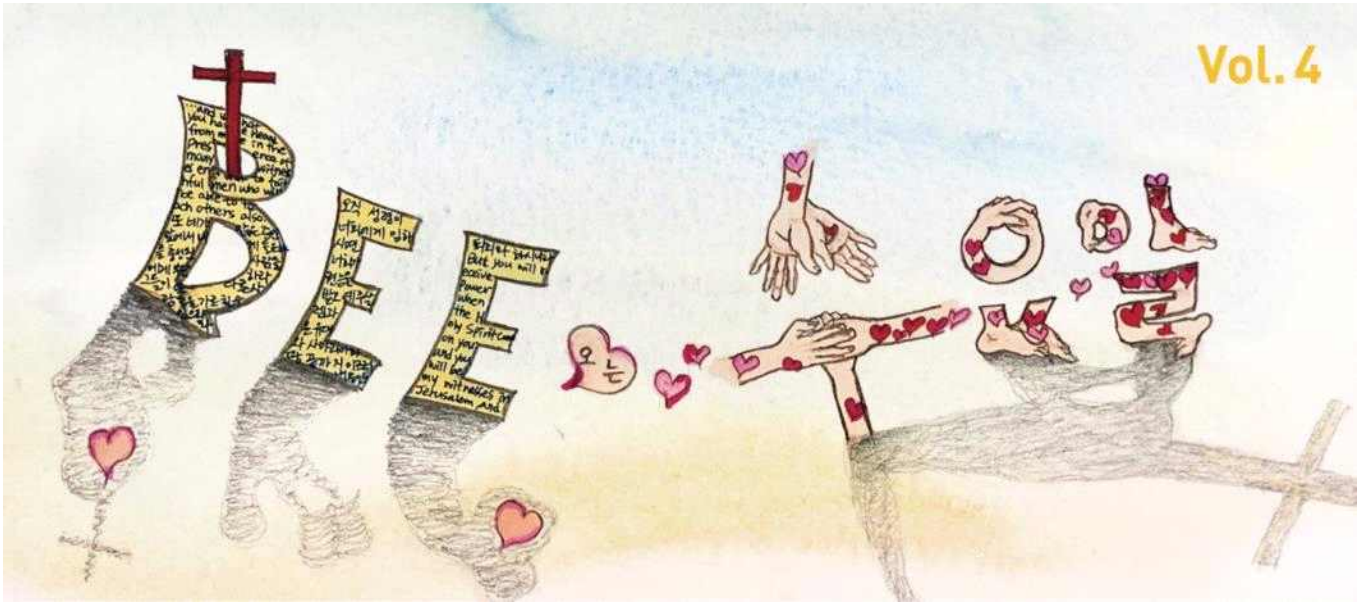

열다섯번째 이야기

[2019 LUCE CHOIR 베트남 아웃리치 후기]

사명을 이룬다는 것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렘16:21)

1. 준비 이야기

조금은 무거운(?) 말씀을 들고 아웃리치 준비를 시작했다. 단장님이신 정진희 권사님께서 주제성구로 받은 이 말씀은 20여 년의 BEE 역사를 통해서 베트남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노파심(?), 경고(?), 각성의 외침으로 느껴졌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는 주님께 맡기고 정동기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아웃리치 준비 기도모임에서 우리 모두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다.

합창단인 루체는 우선 품위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 곡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숙제였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이퐁의 헌신된 BEE 인도자 리엔 사모님의 딸 트엉 자매가 한국에 유학중이라 그 자매의 도움으로 곡을 선택하고, 발음도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악보가 없는 선교지의 음악을 음원만을 가지고 악보를 만들고 편곡해주신 정진희 권사님의 막내며느리인 장지영 자매님의 도움이 이번 뿐 아니라 번번히 아웃리치를 갈 때마다 큰 역할을 해주었다.

선택한 곡은 온 국민이 아는 베트남 전통민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사해서 교회에서 불리는 곡이었다. '하나님의 사랑(띤 이에우 띠엔 쭈어)'는 피아노 외에 기타와 우크렐레, 오카리나, 우드체임벨, 북(김정민, 박재현, 염명순, 김은일, 한금선, 김기행)으로 다양하게 반주를 꾸몄다. 찬양 중간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랩 파트는 베트남어의 성조 때문에 가사 전달에 매우 회의적이었으나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열심을 내주었다.

목요일 이른 아침, 설렘과 기대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공항에 모인 루체 26명! 아, 빼놓을 수 없는 한 분! 아웃리치를 오고 갈 때마다 봉고차로 공동짐을 싣고 공항으로 배웅과 마중을 나와주시는 박용훈 목사님까지 27명이 모여 박 목사님의 기도로 완전무장!! 출발~~

2. 사역 이야기

1, 2차 팀이 12시경 도착하고 3차 팀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며 선교사님께서 준비해온 소이(주먹밥)를 먹으러 렌트한 버스에 올라간 때부터 우리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날씨는 무척 더웠다. 그 후로 계~~~속 무척 더웠다. 5월 기후로는 10년 만의 더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들어한 만큼 특히 신사랑 선교사님의 고충이 얼마나 크실지 잠시라도 조금은 실감한 것 같다. 이 더위에 이런 저런 음식과 간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그 음식들을 들고 이곳저곳 훈련 센터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하노이 교회에 가서 강의실을 빌려 도착 예배를 드렸다. 이규인 권사님의 베트남에서의 첫 기도로 우리의 심령은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와 장래에도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졌다.

베트남은 2012년 7월 당시 이우진 선교사님이 계실 때 TBC 졸업식에 갔었고, 2015년 7월 김근식 선교사님과 각 훈련 센터 방문을 위해 여러 교회를 다녔었고, 올해는 120여 명의 DPM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슨, 하이퐁, 카까잉의 3번의 졸업식에서 약 20분 정도의 특별찬양을 했다. '환희의 소리'라고 제목을 붙인 첫 순서 난타를 힘 있게 공연하고,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기 위해 대열로 서면 난타팀(김기행, 한정희, 김양수, 김은일, 허서윤, 류지혜)은 땀범벅에 벌겋게 얼굴이 달아올라 있어서 조금은 안쓰럽게 보였다. 함께 북을 친 지휘자를 바라보는 단원들의 마음도 같았으리라.

베트남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감정표현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베트남곡 '띤 이에우 띠엔 쭈어'를 할 때는 함께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이어진 곡은 10년 전 루체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예수님이 좋아 좋아'이다. 3분이 안 되는 짧은 곡이라 약 30초 정도의 간주를 만들고 다섯 사람만(김미영, 백영신, 염명순, 김경은, 이성희) 부채춤을 추었다. 아직 40대인 이성희 자매를 빼고는 환갑이 넘었거나 거의 환갑인 분들인데 부채춤을 출 때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예뻤다. 이 분들은 두 번의 레슨을 받았는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늦었다고 생각해선 안 될 일이었다.

부채가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졸업식은 조문상 선교사님을 선두로 김근식 선교사님을 따라 베트남 교단 분들과 학생들이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부채로 긴 부채지붕을 만들었고 그 지붕 아래로 음악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는 졸업생들의 표정은 감동한 듯, 쑥스러운 듯 수줍어하는 모습들로 매번의 입장식은 우리들의 즐거운 또 다른 사역이 되었다.

오토바이 사고에도 졸업식에 참석한 카까잉 졸업생

베트남 BEE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교회라고 안내를 받은 하노이 항자교회에서 토요일 오전에 세미나를 참관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은 만국 공통어이지만 찬양은 천국시민의 공통어인가? 무엇인가 찐~하게 통하는 것을 느낀 우리는 서로 서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였다. 일주일 후 김근식 선교사님께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셨는데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다고 연락을 주셨다. 선교사님과 BEE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니 참으로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다.

하노이에서 하이퐁으로 가는 길에는 공산당의 발현지라고 하는 도슨에 좁다란 골목으로 들어가서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미니어처같이 작은 도슨교회는 작지만 가치 있고, 작지만 강한 분재 같은 감동을 주었다. 어쩌다 절벽 끝 북향 바위 틈새에 뿌려진 씨앗이 싹은 냈지만 햇볕 한 번 받지 못하고 모진 비바람으로, 숨은 붙어 있지만 자라지는 못한 분재!! 그러나 그 어떤 나무보다도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분재!! 담임 목사님이신 안 목사님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주일에 하이퐁 교회에서 찬양 저녁집회를 했다. ‘Redeemer’라는 무언극(김승규, 이춘호, 최봉선, 박시연, 이성희)을 준비했는데 이 무언극은 관객들로 하여금 최고의 집중력을 갖게 하고 나 또한 그 공연을 볼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는다. 7년 전 루체의 첫 번째 베트남 사역 때 총무님으로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해주셨던 김인균 집사님은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 2대 총무로 여러 궂은일을 담당해 주셨던 김근식 집사님은 선교사님이 되셨다. 공교롭게도 두 분은 우리가 준비한 무언극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이시다. 지금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으신 김승규 팀장님이 이 역할을 맡고 계신다.

하노이 주일예배와 도슨 교회 방문, 하이퐁 졸업식, 하이퐁 교회 찬양예배까지 온종일을 4번의 사역으로 활활 태운 주일 밤에 우리가 하이퐁에 갈 때마다 숙식을 제공해 주시는 찐 장로님 댁으로 갔다. 베트남 기독교의 든든한 거목이신 찐 장로님의 초대는 그 분의 하나님 사랑, BEE 사랑, 조문상 선교사님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넘치는 섬김을 받았다.

하이퐁 찐 장로님의 초대

긴 시간 버스로 이동할 때, 조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베트남 사역의 시작 이야기는 베트남 사역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버스 안에서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역 이야기는 그 자리가 아니면 듣기 힘든, 알기 힘든 선교 사랑방 이야기 시간이었다.

3. 우리 이야기

5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밤 12시 비행기를 타는 마지막 날, 육지의 하롱베이라는 짱안을 가게 되었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예비된 여정이었다. 기온도 약 10도 가량이 떨어져서 시원하고 경치도 무척 아름다웠는데 4명씩 함께 배에 탄 우리가 아름다웠다. 뜨거운 사역을 마치고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주어진 이 휴식은 주님의 선물이었다.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때마다 힘써 먹이고, 새로운 도전에 부담스러워도 묵묵히 순종하며, 간간히 발생하는 갈등과 그 시험들을 통과하여 그보다 더 깊은 동료애를 가지며, 아웃리치에 다리미를 챙겨 오고, 항상 북과 남은 짐들을 챙기며, 사진을 찍느라 자기가 찍힌 사진은 없고, 늦은 나이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게 이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다며 웃는 우리!

우리 중 늦게 합류했지만 모든 곡을 자신 있게 외워 찬양하고, 젊다는 이유로 막일을 담당한 분(하영민), 또 이 더운 아웃리치 기간에 손을 꼭 잡고 다녀서 즐거운 비난을 사고 마지막 날 소감 한마디에 눈물로 사랑을 고백해 준 두 분(강기형, 이희선), 사역의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해 준 기특한 어린 정민이, 수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과 위로로 흠뻑 젖은 짱안이었다.

4. 사명 이야기

하이퐁 교회 성가대

베트남은 졸업식과 예배 설교가 무척 길었다.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설교가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재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과 BEE의 대사로 간 우리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긴 시간 바른 자세로 들었어야 했다.

하이퐁에서 찬양집회 때 감사하게도 조문상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하시며 선교사로서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선택했고 그 열매를 보는 축복을 누린다고 하시며 베트남 졸업생들과 하이퐁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의 헌신을 독려했다. 그렇다! 베트남의 120여 명의 졸업생들은 그 기회가 주어진 선택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들! 그 모델들이 김근식, 신사랑 선교사님이시고, 1997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사역에 함께하신 정진희, 백인호, 성아나 우리의 선배님들이시다. 22년 전에 이 분들은 훈련 센터 13곳이 세워지고, 20여 곳으로 확장되어 가는 지금의 베트남을 상상하였을까.....

우리의 베트남 아웃리치 주제말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루체가 아니었다. 우리가 집중했던 베트남 120명 졸업생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베트남에서의 받고 누린 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베트남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에 감동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 분을 찬양함에 행복했다.

사명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글쓴이: 류지혜 사모]

온비아 9기로 BEE를 시작하였고 BEE 합창단인 LUCE CHOIR에서 총지휘를 맡고 있으며, '꿈이 있는 교회'에 남편 권순명 목사와 함께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BEE의 보석 찾기

15. 김진승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008년 여름, 베이징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나, 육신의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나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때 어렴풋하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와 BEE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지금은 내 가정을 천국의 원형으로 회복하고 싶은 비전과 나아가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BEE는 저에게 말씀을 기초로 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양재 BEE 토요기도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BEE를 통해 성경의 비밀을 더 알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으로 '나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16.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약했던 심령을 가다듬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힘든 영혼을 중보하는 권사님이 양재기도모임에서 함께하십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6월, 말씀을 행하라 '관용,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공평하게 다른 사람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속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한 달 되소서.

2. 6월 16일(일)-21일(금)의 '몽골 DPM 졸업식 및 FTS', 그 동안 몽골 땅에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함께해요.

3. 7월 8일(월) HOME COMING DAY! 25주년을 맞이하는 BEE KOREA! 25년 동안 BEE KOREA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새로운 25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계획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8월30일(금)-9월2일(월) 양재 BEE기도모임에서 일본 아웃리치를 갑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양재 BEE기도모임 식구들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5. 6월 6일(목)-17일(월) '코트디부아르 DPM 졸업식과 FTS' 아비장에서 68명의 학생 DPM 졸업식이 있었습니다.